



2단원 어휘 수업

성어의 유래

1. [] 맹자(孟子)가 학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베의 날을 끊으며,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이와 같다고 훈계했다. 맹자는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여 훗날 훌륭한 유학자(儒學者)가 되었다.

2. [] 자공(子貢)이 위(衛)나라의 대부인 공문자(孔文子)의 시호(諡號)가 어떻게 해서 '문(文)' 이 되었는지를 묻자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첩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로써 시호를 문이라 한 것이다."

성어의 유래

3. [] 중국 춘추시대에 백아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 종자기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4. [] 《주역》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라고 한 데서 유래함.

足 (발족): ‘발’이나 ‘발로 하는 행동’과 관련된 뜻을 가짐.

1. 不足[/]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 넉넉하지 못함.

2. 通路[/]

통행하는 길.

3. 踏査[/]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足 (발족): ‘발’이나 ‘발로 하는 행동’과 관련된 뜻을 가짐.

4. 踏襲[/]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함.

5. 潛跡[/]

종적을 아주 숨김. (=潛迹)

6. 跳躍[/]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어휘	한자의 뜻과 음		풀이
妥當	타당할 타	마땅할 당	사리(事理=사물의 이치)에 맞아 마땅함.
群衆			한 곳에 무리 지어 모여 있는 사람들.
和睦	화할화	화목할 목	
規則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성한 법칙. 제정된 질서.

어휘 뜻풀이

·琴瑟 [/]: 거문고와 비파.

·梅蘭菊竹 [매화 매 / 난초 란 / 국화 국 / 대나무 죽]

: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

교과서 속 한자 어휘

어휘	한자의 뜻과 음		풀이
俗談			세속의 말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일상 격언을 뜻함.
儀軌			국가나 왕실의 주요한 행사의 의식 절차 규정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
色彩			빛깔.
輸送	나를 수	보낼 송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 옮김.
沿岸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어휘	한자의 뜻과 음		풀이
斷腸	끊을 단	창자 장	
壓卷			여러 책이나 작품 가운데 제일 잘된 책이나 작품.
白眉		눈썹 미	흰 눈썹.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
管見			대롱(구멍)으로 보다. 좁은 소견이나 자기의 소견을 겸손하게 이름.
牙城	어금니 아	재 성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어휘	한자의 뜻과 음			풀이
清白吏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
茶飯事				차를 마시고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하는 일.
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일이 썩 쉬움.
似而非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長蛇陣				썩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형용하여 이르는 말.

논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志于學: 뜻 (지) 어조사 (우) 배움(학)

≡ 志學

학문에 뜻을 두다.

공자가 열다섯 살 때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한 데서 유래하여 15세²를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 공자 같은 성인도 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부지런히 갈고 닦은 끝에 이루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논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而立: 말이을 (리/이) 설 (립)

뜻을 세우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공자의 말이다. 30살.

논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不惑: 아니 (불) 미혹할 (혹)

미혹되지 아니한다.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40살.

논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知天命: 알 (지) 하늘 (천) 명령할 (명)

천명을 안다.

공자가 나이 **쉰**에 천명, 곧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고 한 데서 연유하였다. 여기서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는 뜻이다. 곧 마흔까지는 주관적 세계에 머물렀으나, 50세가 되면 서 객관적이고 보편적 세계인 성인의 경지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농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耳順: 귀 (이) 순할 (순)

귀가 순해진다.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60세** 학자에 따라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바가 없고,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 또는 "말을 들으면 그 미묘한 점까지 모두 알게 된다"거나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한다"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논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從心: 따를 (종) 마음 (심)

마음대로 한다.

70세. '종심'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 · 제도 · 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든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는 뜻이니,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지도를 이룸이다.

논어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

나이	어휘	한자의 뜻, 음	풀이
15세	志于學	뜻 지, 어조사 우, 배울 학	
30세	而立	말이을 이, 설 립	(확고하게) 홀로 서다.
40세	不惑	아니 불, 미혹할 혹	
50세	知天命	알 지, 하늘 천, 목숨 명	천명을 안다.
60세	耳順	귀 이, 순할 순	
70세	從心	따를 종, 마음 심	마음 가는 대로 한다.

응용하기

1. 俗談()에는 옛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지혜가 담겨 있다.
2.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 왕조 儀軌()는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3. 전시된 작품의 色彩()가 호화롭다.
4. 석탄과 같은 광물의 輸送() 수단으로는 철도가 대표적이다.
5. 기름이 유출되어 沿岸() 양식장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